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rvice model of digital library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namyj@cau.ac.kr

이현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caulis98@gmail.com

Young-Joon Nam, Prof. of LIS in Chung-Ang University

Hyun-Jung Yi, Dept. of L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h.d course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전자자원과 웹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과 기기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IT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검증된 어떤 형태의 정보자원도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NDL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서이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디지털정보자원만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디지털도서관의 원형을 구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NDL의 구성원들의 디지털도서관의 운영고도화를 위한 설문을 바탕으로 디지털도서관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요인은 조직의 전문성을 비롯하여, 제도적 정보자원의 확보, 정보활용교육에 기반한 홍보방안 수립 등이었다.

1. 서론

디지털도서관은 국내외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기존 도서관의 대이용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의도한 능동적 공간 및 시설이다. 즉,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전자자원과 웹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과 기기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IT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검증된 어떤 형태의 정보자원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도서관이 기존의 도서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디지털 자원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하, NDL)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서이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디지털 정보자원만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디지털도서관의 원형을 구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운영관리자의 입장에서 NDL 구성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 운영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특징

NDL은 태생적으로 기존의 도서관의 물리적 특징을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환경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킨 도서관이다.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내에 있는 모든 전자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자도서관이다. 기존의 전자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채널을 웹상에 개설한 것으로서 일종의 고도화된 홈페이지의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NDL은 물리적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전자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도서관

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전문은 기존의 전문도서관의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자료유형이 전문화된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도서관이 개인화된 공간에서 개인중심의 학습이나 열람을 중시한 것이라면, NDL은 디지털시대에 그룹별 지식창출과 같이 협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적 서비스를 통해 현대 이용자들의 욕구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자자원을 열람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통해 입수한 전자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과 시설, 기기, 서비스가 모두 갖추어진 인포메이션 코먼스철학이 투영된 복합 지식창출공간이다. 이러한 공간디자인과 서비스 철학은 기존 도서관의 공간정책과 서비스 정책, 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공간서비스의 강화는 디지털 시대에 국제화와 세계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분위기 등 제반적인 사회환경을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NDL의 3층 로비에는 정보광장에 대한 상세 이용안내가 가능하고 외국인의 다국어정보실 이용안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였다. 특히, 디지털열람실에는 전문 레퍼런스(주제정보, 전문정보)가 상시 가능한 직원이 배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각 공간의 직원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즉,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가운데 자료열람의 환경에 대한 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동인을 수용하고 있으나, 정보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인 도서관역할은 강화되는 형태로 NDL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운영인력 확보가 인포메이션 코먼스 환경내에서 이용자 교육과 함께 이용자 요구에 대한 응대라는 정보서비스 목적을 위한 필수요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공간 및 시설

공간 및 시설부문은 각 층의 공간별로 세부 설치 품목을 나열함으로써 NDL의 서비스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지하3층의 메인로비는 이용증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개인공간으로 일반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지원 OS환경 및 입력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물리적 요소의 완비에 비해 외국어 자료로써 콘텐츠의 절대부족으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로비 공간은 특별한 물리적 인증과 함께 인터넷 인증없이도 간단한 정보검색이나 스탠딩 자료열람을 의도하여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이용자 배려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3층을 도서관의 상징공간,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여 다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외국인을 위한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개선하여 이용률 증대를 꾀하고 있다.

디지털열람실은 원문DB, 웹DB, 온라인 콘텐츠의 검색, 열람, 인쇄, 문서 편집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시청각 매뉴얼, 실시간정보도우미 서비스, 사이버머니 과금시스템, 웹 리더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준비된 환경 내에서도 디지털열람실의 고유목적인 디지털 정보자원의 열람 및 이용보다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률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열람실만의 특화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디지털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노트북이용실은 이용자들의 휴대

용 단말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지원하고, 한편 단순한 검색만 수행하는 이용자들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실제 전자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구분하여 학습 혹은 열람 환경의 개선효과를 의도하였다. 디지털편집실은 이용자들이 UCC와 같은 정보제작에 필요한 전문 기기와 환경,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도서관 이용자가 과거에 도서관의 정보자원을 일방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에서 자기가 제작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동적 이용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룹별 동영상형태의 어학자료나 영화자료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반개방공간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미디어자료이용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상/음향스튜디오는 전문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이용자들의 정보제공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세미나실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그룹별 토론과 정보열람,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공간과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와 만족도 조사, 선진도서관의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하였다.

2.3 이용자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물리적 디지털 도서관은 2009년 5월 27일에 개관한 이후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이용자수를 분석한 결과, 방문하는 이용자수는 일평균 1,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용자는 대부분 학생(직업별 이용자 비율로 30%) 또는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직업별 이용자 비율로 68%)로 연구활동 또는 업무 관련 정보수집, 자료열람 등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거나 친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도서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NDL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용자들의 평가 및 이용자간 홍보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NDL인지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별로는 디지털열람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트북이용실, 미디어자료이용실, 디지털편집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문의가 가장 많은 공간은 노트북이용실과 디지털열람실, 디지털편집실 등이고 문의내용은 이용안내, 자료문의, 예약시스템, 웹이용 등으로서 가장 이용률이 빈번한 곳에서 기본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개관 초기이므로 이용자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비스가 이용안내서비스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점차 정보리터러시, 레퍼런스 등의 정보광장 대민서비스를 위한 사서의 전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3.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현황

3.1 국내 디지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기존 중앙도서관 건물과 연결하여 최첨단 IT 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쾌적한 연구·학습공간을 갖춘 학술정보관을 신축함으로써 연면적 약 53,00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도서관이 되었으며,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직 명칭을 중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4부 1실 6과의 직제를 5부 1실 10과로 확대 개편하였다.

U-Lounge는 중앙도서관 1층 로비로부터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지하 1층으로 연결되

는 공간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휴식, 미팅하거나 IT장비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 Ubiquitous 기술을 적용하였고, 학술정보관에 대한 공식 안내 및 학내 대자보나, 각종 공지사항 등을 터치 방식으로 조회하고 볼 수 있는 Intelliboard, 쇼파가 설치된 휴게공간에서 Virtual Reality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연못 등이 특징적이다. 그 밖에 디지털북 서비스나 서고검색, 전자신문, 스마트 테이블, 메모보드 등을 모두 U-Lounge에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한 곳에 집약하였다. 큰 규모의 면적을 활용하여 노트북 이용 공간이나 휴게 공간 등은 이용률이 높은 공간은 다양한 곳에 분산 배치하였다.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은 2009년 3월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개관한 디지털도서관으로 역시 최첨단 IT 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쾌적한 연구 및 학습공간을 갖춘 연면적 7,200㎡의 도서관이다. 화상토론 및 각종 문화공연, 국제회의가 가능한 오디오리움을 갖추고 있고, 미디어 제작을 위한 전문공간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어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각 서비스공간들이 효과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간을 구분하는 유리벽을 적절히 사용하여 비교적 소음문제가 적은 편이다.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은 2005년 5월에 개관하였다. 학생들이 멀티미디어를 직접 제작 및 시연할 수 있도록 최신의 Digital 장비를 갖추고 있는 체험학습공간인 Multimedia Production Lab과 UN, EU,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자료실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20명 내외 규모의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3.2 국외 디지털도서관

국외 디지털도서관은 물리적 도서관의 일부공간에 인포메이션 코먼스라는 서비스 철학을 내포한 일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Brigham Young University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대학으로 2005년 Harold B. Lee Library의 Information Commons를 설립하였다. Production Lab이라 부르는 공간에서 논문 출판을 위해 현장/시장을 연구 및 조사하거나 문서에 대한 검색질의와 제출양식 등 논문 출판 등과 같은 IT를 활용하는 정보서비스에 관한 것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Public Library of Charlotte & Mecklenburg Country에는 Music Composition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어서 MIDI 제어기와 사운드편집, 연주 소프트웨어, 음악 연주용 키보드가 장착된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은 음악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자가 음악 창작 및 제작 전문공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oronto Public Library는 Digital Design Studio라는 디자인 작업 전문공간을 가지고 있다. 문헌, 사진, 슬라이드 등을 스캐닝할 수 있고 웹페이지를 개발, 설계할 수 있고, 레포트, 뉴스레터, 광고지 등도 생산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므로 일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진, 홈비디오 편집,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핸들링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3.3 국내외 비교

국내의 디지털 도서관은 전통적인 인쇄형 자료나 물리적 형태의 매체로 도서관 서비

스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전자자원의 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공간과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는 추세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휴게소와 같은 문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지식의 공간에서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세대 대학생들이 IT와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등과 같은 현대사회를 규명하는 아이콘들을 도서관의 정보채널로 수용하는 변화이다. 국내 사례에서 다국어정보실과 같이 다문화가정이나 제2외국어 문화권사용자들을 위해 배려한 이용자 공간은 도서관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예상한 이용률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컴퓨터 자판의 타건에 따른 소음과 컴퓨터의 자체 소음, 이용자 협의를 위한 최소한 소음, 멀티미디어 상영 공간의 개방에 따른 최소한의 소음 등은 정책적 배려보다 시설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의 사례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의 특성을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공간에 디지털자원열람과 활용을 분리하는 것보다 기존의 도서관에 인포메이션 코먼스와 같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포맷의 매체에 대한 접근을 기존 인쇄형 자원의 접근과 함께 활용하도록 배려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해외 도서관에서 열람공간에 사서들을 배치하고, 해당 사서들은 IT기기에 기반한 열람과 활용에 따른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IT활용교육능력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추세로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4. 디지털도서관의 운영모델

이 장에서는 NDL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

해 필요한 운영모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의 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4.1 설문 의 의도

우리나라의 디지털도서관 발전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와 함께 디지털도서관의 운영모델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은 도서관 서비스와 도서관 자원, 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도서관 방문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이에 비해 디지털 도서관은 국내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복합문화와 휴식공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적 서비스만으로도 이용자들은 만족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의 전통적 가치 외에 것으로도 도서관 방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통적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모델은 이용자 입장과 함께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들의 철학과 판단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도서관을 관장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기간은 2009년 10월 15-2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NDL,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1건이 회수되었다(전체 직원대비 43%). 설문은 크게 NDL 운영을 위한 조직과 장서구성, 공간의 세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1) 조직

NDL은 디지털 자료만을 소장하고, 디지털 자료만을 열람하기 위한 이용자만 방문하는 매우 특화된 디지털 도서관이다. 실질적으로 정보활용교육을 비롯하여 장서구성, 이용자 대응방안, 서비스 전략 등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도서관운영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요원은 특화된 전문교육과 함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과 함께 행정 조직에 있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하나의 부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못하는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으로써 NDL이라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조직의 특화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사서들은 NDL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조직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긍정적인 대답(56.4%)이 반대의 의견(33.4%)보다 많았다. 찬성의 의견을 바탕으로 NDL에 대한 고유업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서들은 NDL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과 도서관에 명시된 국가디지털자원 납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립디지털자원 아카이빙센터,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센터, 국가지식자원 포털운영센터, 국립디지털 레퍼런스센터 등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제시하였다. 이는 NDL에 대해 단순하게 대민서비스를 전담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포함하여, 국립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기능도 NDL의 주요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NDL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함께 운영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될 디지털도서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책 및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장서구성

NDL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고도화할 부분과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다. 설문에 따르면, 사서들의 과반수 이상이 NDL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즉 NDL에서 설정한 서비스 목표와 수준에 이용자들이 유인되지 않는 것으로 사서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NDL에서 제공하는 전자자원(콘텐츠)의 부족과 함께 홍보 부족, 서비스 인력의 부족 등을 서비스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NDL에서 확보한 학술관련 국내외 저널DB의 수는 39종이다. 이 수치는 공공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수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종수보다 적은 수치이다. 이는 NDL이 공공도서관으로 간주하느냐 혹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한 인쇄자료(납본자료 포함)에 대한 디지털화를 수행하고, 일부 관련자료만을 관내서비스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DL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전자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의 원천적 기능인 장서확보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서구성에 대한 문제를 NDL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사서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저해요인으로써 홍보의 부족은 NDL 개관을 비롯한 NDL 시설과 서비스, 기능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NDL의 서비스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성원들은 디지털자료 확보와 홍보에 대한 것을 설문을 통해 주문하고 있었다. 자료의 확보는 NDL이 국

립중앙도서관의 부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의 납본권리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에 명시한 도서관내 열람과 도서관간 전송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열람, 전송이 가능하다. 이는 납본된 자료의 디지털화와 동시열람상황에 대한 법적인 선결문제가 소장자료 확대에 직결됨을 의미하고, 이것이 서비스 확대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제한은 도서관 외부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NDL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납본법 등의 제정과 같은 시스템적인 수집 및 확보방안이 필요함을 약 83%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동의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이나 홍보만으로는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확보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용자들이 NDL에 디지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NDL에 인쇄자료를 비치할 것인지를 설문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디지털 자료의 납본과 열람 및 전송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에는 열람용 콘텐츠 확충 보완책으로 해외 상업용 DB를 구매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NDL 정보서비스가운데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이용자교육으로써 정보리터러시(정보활용) 교육, 컴퓨터활용능력 교육지원(포인트샵과 같은 정보처리도구 이용자교육) 교육의 강화가 이용자 교육적 측면과 함께 잠재적 이용자 확보를 위한 중요한 NDL의 역할이자 홍보방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3) 공간

NDL의 서비스 철학에서 인포메이슨 코먼스 정신은 공간과 시설에 기반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NDL 공간의 개발과 배정은 기존 도서관과 다른 철학을 적용하였다. 개인화된 공간의 확보와 함께 협업을 통한 지식의 창조를 위한 협업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보의 능동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대기실의 목적을 가미한 노트북 열람실, 정보광장, 이용자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서비스가 NDL의 당초 계획과 철학에 따라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함께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을 사서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률이 저조한 공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원래 NDL의 공간철학과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견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용자교육과 홍보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4.2 디지털도서관 운영모델

물리적 공간으로서 디지털도서관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기존의 도서관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디지털도서관도 공간,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함께 각종 공간의 적절한 배치,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설치, 서비스 및 운영방안, 정책, 적절한 인적자원 및 예산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도서관 활용도와 만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 및 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정보자원의 확보와 웹상의 공간마련만으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 도서관의 홈

페이지가 전자도서관이 아닌 것과 같이 디지털도서관도 시설, 자원, 공간이라는 도서관 구성의 3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정보광장의 도입요소에 대해 EDUCAUSE 2005 Workshop에서 1) 정보광장 설치를 위한 목적, 요구되는 결과, 미션, 비전 등의 결정, 2) 학습, 사회적 공간, 가구의 디자인 및 배치, 접근과 안전 등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의 확보, 3) IT환경,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E-Content 등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려, 4) IT기반의 개인 또는 그룹별로 구분된 다양한 학습공간, 5) IT와 정보의 접근, 사용, 평가, 재생산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의 제공과 참고서비스, IT 및 멀티미디어를 위한 분리된 공간 및 Information desk의 운영, 6) 휴식 및 친교 등을 위한 사회적 시설, 7) 운영체계, 인적요소(사서, IT전문가, 기타 지원인력), 예산 등의 관리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NDL의 운영요원들의 발전을 위한 설문을 바탕으로 디지털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3대 요소는 고도화된 전문인력과 도서관으로써 갖추어야 할 장서의 망라성, 현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공간에 지배되는 새로운 서비스 전략의 개발, NDL 서비스 철학의 이해를 위한 대이용자 홍보 전략 등이 디지털 도서관의 기준이다.

5. 결론

디지털도서관은 기존의 물리적 도서관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자자원이라는 소장자료의 원천적 차이 때문에 새로운 운영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도서관 운영모델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NDL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

영모델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 디지털도서관의 운영조직은 기존의 도서관 역할 이외에 디지털정보자원이 갖는 특성에 따라 새로운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도서관 장서수준의 장서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정과 같은 제도적 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공간에 기반한 서비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전략으로써 정보활용교육과 같은 이용자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요인은 디지털도서관이 국가수준이건 혹은 공공, 대학의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자 서비스만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 것이며, 이 이외에 요구되는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NDL 정보광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09. 오티엔씨
- 국립중앙도서관. NDL 정보광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오티엔씨
- 남영준,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장서의 디지털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9권 1998. : 343~380
- 정재영. Information Commons기반 하이브리드도서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9. : 59~73
- Mountifield, H. 2005 "Elements and collaboration" In Developing an Information Commons Workshop, Educause Australasia;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on 5-8 April 2005. Auckland. New Zealand. <<http://www.educause.auckland.ac.nz/interactive/presentations/3%20Elements%20and%20collaboration.pdf>